

보도시점 : 2026. 9. 17.(목) 11:00 이후(9. 18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17.(목)

통합 고속철도, 첫 추석 앞두고 안전관리 전반 점검

【관련 국정과제】 57.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

- 18일 철도안전정책관 주재, ‘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 회의’ 개최
- 추석연휴 대비 혼잡역사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강화 방안도 점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9월 18일 오전 수서역에서 ‘고속철도 안전관리 점검회의’를 개최하여 한국철도공사(이하 “코레일”)의 고속철도 기관사 교육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, 추석 연휴에 대비한 철도 내 다중인파 혼잡도 및 치안 관리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.

□ 국토교통부는 고속철도 통합 과정에서 총 3차례 현장점검*을 통해 기관사 교육·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폈으며, 이번 회의는 상기 현장점검의 후속으로서 코레일의 실적·이행 현황을 점검하고자 마련하였다.

* KTX-SRT 교차운행(2.25) 대비 차량·시설 분야 점검(1.27~2.6) / KTX-SRT 차량 중련운행(5.15) 대비 차량·승무 분야 점검(5.7~5.12) / 코레일-SR 통합(9.1) 대비 쏘분야 점검(7.28~8.14)

○ 먼저 고속철도 통합운영으로 확대되는 열차 운행횟수에 대비한 고속철도 기관사 확보 현황*과 기관사 운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숙련된 기관사의 동승 운전 지도 현황을 점검한다.

○ 이어서, 이례상황 발생 시 승무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 현황, 이외 차량, 시설, 신호·통신 등에 대한 보완 필요사항*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.

* 예시) KTX-SRT 중련연결 시 객차 시설물의 원활한 작동 여부, 역사 내 시설 개선 등

□ 또한 추석 연휴(9.23~9.27)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다중인파 혼잡 및 철도범죄에 대한 치안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.

- 혼잡이 예상되는 서울·수서·부산역 등 주요 역사에 대해서는 코레일 소속 안전요원 추가 배치* 및 승하차 고객의 동선 분리 등 역사 내 질서 유지 강화 방안을 점검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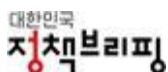
* 서울 33명, 용산 14명, 수서 10명, 영등포 16명, 청량리 17명, 부산 13명 등 추가 배치

- 철도·성추행 등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구역(에스컬레이터, 환승통로 등)에 철도경찰을 증원 배치한다. 현장 인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순찰 사각 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AI CCTV를 활용한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한다.

□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“고속철도 통합이 국민께서 체감하는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안전이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”면서,

- “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철도종사자(기관사, 승무원)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·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코레일의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- 또한, “코레일은 통합 이후 첫 연휴인 추석에는 대규모 이용객이 몰릴 것을 대비하여 혼잡역사 인파관리와 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익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	김 혁 (044-201-4602)
			사무관	노승필 (044-201-4825)



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
MOVE : TOMORROW